

정답 A형

1	2	3	4	5	6	7	8	9	10
③	①	②	③	②	③	④	③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③	④	①	③	④	①	③	②

해설

1. (어휘) 난이도 - 중

muzzle (재갈/입마개를 씌우다, 재갈을 물리다) = ③suppress(진압하다, 억누르다)

- ① express(표현하다, 설명하다)
 ② assert(주장하다)
 ④ spread(퍼뜨리다, 퍼지다)

2. (어휘) 난이도 - 중

pompous(천체하는, 거만한) = ①presumptuous(주제넘은, 건방진)

- ②casual(태평스러운, 대충하는, 편한)
 ③formal(격식을 차린, 정중한)
 ④genuine(진짜의, 진품의)

3. (어휘/숙어) 난이도 - 하

call it a day(∼을 그만하기로 하다) = ②finish(끝내다)

- ①initiate(∼을 시작하다, 개시하다)
 ③wait(기다리다)
 ④cancel(취소하다)

4. (생활영어) 난이도 - 하

③ A: 너의 리조또는 어떠니?

B: 그래 우리는 치즈와 버섯이 들어간 리조또를 시켰어.

5. (어법) 난이도 - 하

② hardly와 never는 2중부정으로 같이 쓰일 수 없다. never를 삭제하거나 ever로 바꿔주어야 한다.

- ①His survival over the years (그의 몇 년 동안의 생존), over가 동안의 의미로 뒤에 the years 명사도 나와있으므로 올바르게 쓰였다.
 ③ “a number of 복수명사”의 형태로 issues라는 복수명사와 문맥상 “많은~가 있었다”로 올바르게 쓰였다.
 ④ which는 “앞에있는 선행사 issues”를 받고 있으면서 “had to argue” 뒤에 목적어가 없으므로 불완전한문장을 이끄는관계대명사 which가 올바르게 쓰였다.

6. (어법) 난이도 - 중-상

③ “another + 단수명사”로 일반적으로 알고있으나 another가 “더, 추가의”라는 의미로 뒤에 복수명사를 쓸수도 있다.

- ① fell은 과거동사이다 “have p.p.”이므로 “fallen”으로 바뀌어야 한다.
 ② 주어 “Experts(전문가)”들이 추측하고 있다는 문맥이고 뒤에 목적어 “that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are suspected”는 “suspect”로 바뀌어야 한다.
 ④ “that”절 안에 주어 “people”동사 “had”목적어 “disease”로 완전한 문장이므로 “begin”이라는 동사는 나올 수가 없다 앞에 있는 “disease”를 꾸며주는 “p.p. begun”으로 바뀌준다.

7. (빈칸) 난이도 - 중

앞의 문맥에 따르면 아이들이 보여주는 공격적인 행동은 집안에서의 어떤 공격적인 행동이나 강압적인 가족관계가 안 좋은 결과를 낳는데 그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게 이끌어내고 강압적인 행동을 가속화시킨다고 했으므로 빈칸문장에 공격적인 행동의 희생자들은 결국 “initiate aggressive interchange(공격적인 상호교환을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배운다는 문맥이 자연스럽다.

8. (독해) 난이도 - 중-하

보기 ③He had a doctrinaire faith에서 doctrinaire는 교조적인이란 뜻

으로 독단적인, 고집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문에서 보면 Durkheim’s의 감시를 받았다고도 나오며, 그의 철학의 개념은 Durkheim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으며 Durkheim이 Mauss를 위해 과목을 선택하는 말도 나오고 있으므로 독단적이고, 고집했다고 할 수 없다.

9. (독해 순서배열) 난이도 - 중상

우선 (d)번에 “in ancient times~”부분으로 시작하는게 시간순서상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a)번에 today, however로 이어지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순서가 맞고 (c)번에서 나무를 자르는 이유와 안좋은 결과에 대해서 언급한다 (c)번에 밑에서 두 번째 줄 “In industrialized countries~”로 시작하고 (b)번에서 these countries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올바른 순서는 ④(d) - (a) - (c) - (b)

10. (연결사) 난이도 - 하

첫 번째 빈칸 앞에 “그것들(예술작품)은 다소 빠르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고 뒤에 “모든 예술작품들이 즉시 구매되는건 아니다”라고 하고있으므로 “원인-결과”에 들어가는 “therefore”는 어울리지 않다. “예술작품은 빠르게 인정받는다, 물론(of course), 즉시 구매되는건 아니다”라는 문맥이 자연스럽다. 두 번째 빈칸앞엔 “동시대 예술작품은 사회적 명성을 증가시켰다”라고 나오며 빈칸 뒤엔 “예술작품이 자동차처럼 마모(녹슴, 파손)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문맥이 오고 있으므로 앞과 뒤에 같이 예술작품의 장점에 대해 언급하므로 “Furthermore(게다가)”가 자연스럽다 답은 ①번이다

11. (어휘) - 난이도 하

essential(본질적인, 중요한) = ①crucial(중요한) = ③indispensable(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의) = ②requisite(필요한)

④ omnipresent 어디에나 있는, 만연한.

12. (논리) 난이도 - 하

존슨씨는 그 제안에 반대했다 / 그 제안이 wrong principle(잘못된 원칙)으로 만들어졌으며, 또한 inconvenient(불편한)하기 때문이다.

- ① faulty (흠있는, 틀린) - desirable(바람직한)
 ② imperative(필수적인, 중요한) - reasonable(합리적인)
 ③ conforming(따르는, 순응하는) - deplorable(통탄할만한, 개탄할만한)

13. (어법) 난이도 - 하

③ “that”관계대명사 뒤에 “fits”동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에 수일치를 시켜야하는데 문맥상 “chicago”가 아니라 “clothes”에 맞춰야 한다. “clothes”가 복수이므로 “fits”를 “fit”로 고쳐야 한다.

- ① “Be pleased that S V” “~해서 기쁘다”
 ② “it 가주어 to 진주어” 구문으로 올바르게 쓰였다.
 ④ “What부터 Japanese까지가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써 what 뒤에 “is”동사가 나오므로 불 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쓰였다.

14. (어법) 난이도 - 하

④ 앞에 “전치사 which”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한다. “plastic(S) affects (Vt) the ocean(O)”로써 “affect”는 타동사로 “~에 영향을 끼치다”로 쓰이기 때문에 전치사 on을 지워준다.

- ① 앞에있는 documentary를 꾸며주는 p.p. produced가 올바르게 쓰였다.
 ② left 목적어 p.p.의 형태로 heartbroken이 올바르게 쓰였다.
 ④ 전치사 + which로 the extent(정도)는 주로 전치사 to를 많이 쓰므로 올바르게 쓰였다.

15. (독해-글의흐름) 난이도 - 중

주어진 문장에 3번째줄엔 미국인들이 그 기념일을 ‘jubilee’로 여길수 없다고 하며 콜롬버스의 유산을 축하할게 없다고 하므로 뒤에는 부정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이유가 올 수 있다.

①번에 비평가들의 말을 인용하며 사실은 콜롬버스가 노예와 무분별한 환경착취의 전조라고 하며 비판하고 있으므로 1번으로 이어지는게 적절하다.

16. (빈칸) 난이도 - 하

빈칸 앞에 문맥은 찰스 디킨슨의 어린시절 힘든 시절을 표현하고 있다 빈칸 바로 뒤 문장에 “Cast away”부분에서 보여질 수 있듯이 어린나

에 버려졌다 라고 언급하므로 빈칸에는 이와 비슷한 단어가 들어가는게 맞다 abandon / betray/ disregard는 모두 부정적인 단어로 버려진, 배신당한, 무시되는 등의 의미를 가지므로 옳지않은 것은 반대의 뜻을 가진 buttress(지지하다, 떠받치다)가 들어갈 수 없다.

17. (내용일치) 난이도 - 하

글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Private agencies can be found on the Internet.(사설기관들은 인터넷에서 찾아질 수 있다)" 이라고 나와있다. 보기④번이 "사설기관에 국제입양에 관해 문의할 수 있다" 와 같은 뜻이다.

18. (빈칸) 난이도 - 하

나방과 나비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빈칸 위에줄에 행동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서 빈칸 뒤에서 나비는 낮에 활동적이라고 했으므로 앞에 나방은 밤에 활동적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보기①번의 nocturnal이 야행성의 라는 의미로 옳바르다.

19. (순서배열) 난이도 - 중

첫 문장에 미국에서 사람들을 겁주는 광대가 점점 그 힘(영향력)을 얻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문장에 Although절을 기준으로 가 짜로써 판명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가진다는 문맥으로 가야 하므로 답은 ③번의 "caused a nationwide panic(전국적 혼란을 유발했다)" 가 옳바르다.

20. (주제/제목) 난이도 - 중-상

첫문장에서 one thing - another 구문에서 민주주의가 좋다는것과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다르다고 한다. 그리고 그 밑으로도 서양국가들의 예를 들고 있고 중간쯤에 "Democracy is also not an absolute term" 이라고 하면서 민주주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한다. 민주주의와 다른 나라들의 차이를 보이면서 민주주의가 어느 곳에나 어울리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가장 비슷한 의미를 가진 속담은

②번에 "한사람에게는 음식이 다른사람에게는 독이 될수도 있다" 가 적절하다

여겨집니다.

서울시 9급 시험보느라 우선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연히 유튜브로 자신의 공부하는 모습을 방송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몇시간을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다 열심히 각자 자기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을 것이며 좋은 결과를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때론 안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지난 1년간의 수험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방향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항상 "절실함" 을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절실함" 과 "노력" 을 가진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모두 "절실함" 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 하셔서 좋은 결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단히 수고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세한 해설은 해설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지안 공무원 영어전임 조재권-

총평

난이도 ☐ 매우어려웠다. ☐ 다소어려웠다. ☒ 평이했다.
☐ 다소쉬웠다. ☐ 매우쉬웠다.

총평

생활영어	1문제
어휘+논리	5문제
문법	4문제
독해 내용일치	2문제
독해 주제/제목	1문제
독해 문장삽입	1문제
독해 글의순서	1문제
독해 빈칸 + 연결사	5문제

공부한 양에 따라서 수험생들마다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려웠다 쉬웠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제 기준에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난이도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독해부분에서 빈칸이 많이 출제되었지만 길이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길이보단 독해의 내용이나 단어 구문같은 것들이 좀 어려운데 나와서 해석이 잘 안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게다가 쉽게 나오지 않는 유형(A책형기준 15번의 경우 수험생분들의 입장에서 충분한 연습이 안되어있으면 당황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빈칸 지문 거의 한단어를 넣는 식으로 엄청 어려운 논리독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문법같은 경우는 당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특히 A책형 기준 6번의 경우 보기 ③번에 another가 복수명사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나머지는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주로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해당 파트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되었다면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휘같은 경우고 muzzle을 제외하면 나머지의 어휘들은 평이했던 것으로